

PET병 생산기업 경영압박 심각

원료가 상승 및 수요 침체로 ... 중소기업 부도 속출할 듯

국내 PET병 생산기업들이 원료인 레진의 가격인상과 음료시장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ET병의 원료인 레진가격은 94년말 Kg당 1150원에서 95년초 1450원, 4월에는 1700원으로 불과 5개월동안에 48% 인상됐다.

청량음료용 PET병 생산현황

(단위 : 1,000개, %)								
구 분	HR.1.5	HR.2.0	PR.1.5	PR.1.25	PR.0.5	PR.0.3.5	HPRI.5	계
대 경						16,940		16,940
동양나일론	178,363	538	171,652	1,742	14,006		31,731	398,032
두레산업	4,165		39,940					44,105
두산유리	24,571		60,000	9,695	6,146		4,855	105,267
롯데알미늄			38,108					38,108
삼양사	41,203		55,375		9,632		7,627	113,837
합 계	248,302	538	365,075	11,437	209,784	16,940	44,213	716,289

PET병의 내수가격은 1.5리터 내열병기준 95년초 개당 220원에서 6월 25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PET병 제조기업측에서는 당시의 가격인상이 수요기업의 반발로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95년 PET병 생산량은 94년 13억7070만개의 80%수준인 11억개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PET병의 주수요처인 음료가 7~8월의 장마와 과일 풍작으로 94년에 비해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매출액기준 20%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콜레라의 발생으로 생수시장이 침체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16>

